

마음 열기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 기억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이사야 49장 14-18절,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14절).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 앞의 수많은 고난과 환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는 의문과 절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며 절망했습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부모는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자녀를 떠날 수 있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안타까워하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16절 a).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손바닥에 기록하고 그것을 수시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잊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사43:25).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하면 도말하시고, 우리가 잘한 작은 것 하나를 칭찬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깨닫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를 항상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6b-17절). 이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성벽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너진 심령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망하게 하거나 허무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사49:8).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18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란, 어둠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 사명과 봉사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고난과 환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해봤나요?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2.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인가요?
3.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합시다.
2.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회개합시다.
3.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선교 : 은혜의 확장”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뿐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내 마음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밖으로 나아가게 밀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역사합니다. 먼저 내적인 방향으로써, 내면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내 안의 죄와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다음으로 외적인 방향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과 봉사를 베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그런데 내적 회복은 일어났지만, 그 은혜가 외부로 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입니다. “율법주의”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써, 순종이 무거운 짐이 된 경우입니다. “방종” 말 그대로 순종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웃 사랑이 나의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확하게는, 내적 회복이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비로소 이웃을 향한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선교(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짜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치는 결과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속사람을 먼저 회복시킬 때, 이웃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변하고, 비로소 선교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복음 중심 삶, 생명의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3월 15일

너를 잊지 않았다

이사야 49장 14-18절

